

# 2019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 효과를 중심으로

정형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hgjeong@kiep.go.kr

## I. 들어가는 말

2019년 한 해는 남북 및 북미 관계에 있어서 매우 아쉬운 한 해였다. 2019년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진전에 큰 기대를 가지게 했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결렬되었고, 이후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담은 꺼져가는 북미협상의 불씨를 살려내는 듯 했으나 2020년 1월 현재까지도 북미협상은 공전 상태에 있다. 북한 당국은 2019년 12월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무기를 언급하며 사실상 핵무기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파기를 선언했고, 2020년 들어서는 자립경제와 군사력강화를 앞세우며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 돌파전”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는 통계상으로는 의심할 바 없이 북한의 대외무역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협상에서도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주요 의제로 제시할 만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시장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과,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규모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환율 역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과연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현재 북한 당국이 호언하고 있는 대북제재 무력화와 자력갱생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북중 무역통계를 기반으로 2019년 북중무역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에 있어서는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행된 201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북중 교역구조와 유형,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상품 분류에 따른 북한의 대중수입 품목 분석을 통해서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북 경제제재 효과를 다시 검토해 보고, 2020년의 북한경제와 북중무역에 대해서 전망해 보고자 한다.

## II. 북한의 대중무역

### 1. 2019년 북한의 대중무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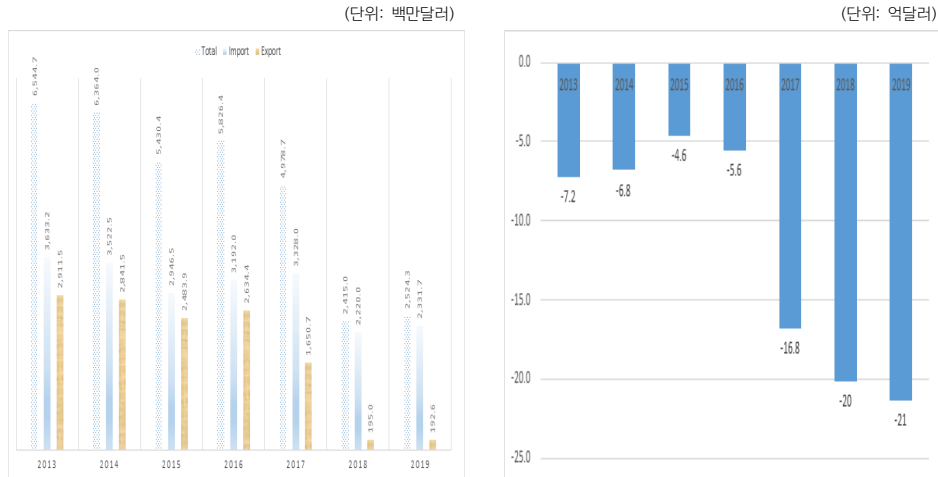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북중무역액은 25.2억달러로 2018년의 24.2억달러를 초과했다.<sup>1)</sup> 12월 통계치가 발표되면 총액은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10년 전 무역액인 2008년의 27.9억달러 수준을 넘기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략적으로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6년 무역액 58억달러의 약 44%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북한의 대중수출(1월부터 11월까지)은 1.93억달러로 전년도 1.95억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는 2016년의 26.3억달러 대비 약 92.7% 감소한 수준이다. 참고로 약 20년 전인 1998년 북한의 대중수출액이 3.3억달러인데, 2019년 대중수출액은 그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렇게 북한의 대중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북한의 수출품에 대한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행된 후부터이다. 반면, 2019년(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의 대중수입은 23.3억달러로 전년도 22.2억달러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그림 1]에서는 앞서 설명한 북한의 수출입 동향과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오른쪽 그림에서는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대중 무역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19년 11월까지의 통계로 이미 전년도보다 더 많은 21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12월 북한의 대중 수출입 통계까지 포함된다면 무역적자 규모는 더욱 커져서 북한 통계가 발표된 이후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sup>1)</sup> 현 시점에서 북중무역 통계는 2019년 11월까지의 통계만 발표되었다.

[그림 1]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좌) 동향과 무역수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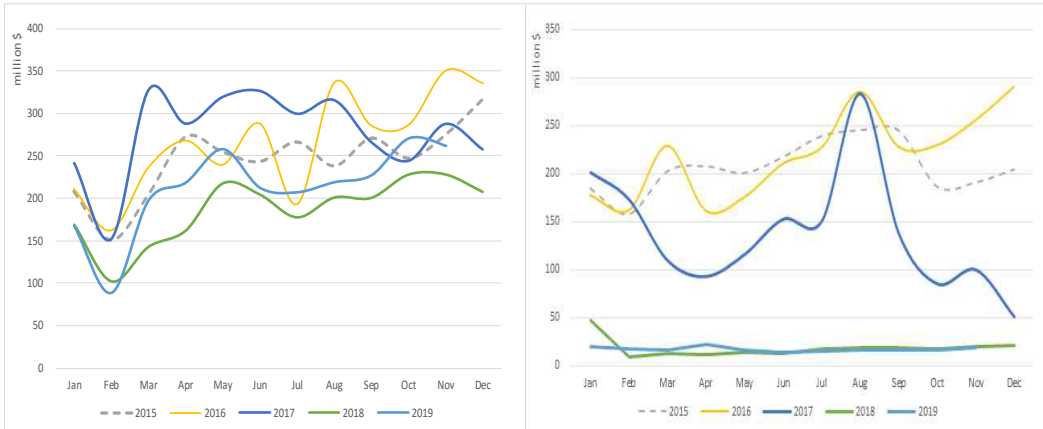
주: 2019년 통계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통계임.

자료: 「해관통계」를 이용해 저자 작성.

다음 [그림 2]의 왼쪽은 2019년 북한의 대중 월별 무역동향을 최근 5년간 추세와 함께 비교한 것이다. 대체로 북한의 대중수입은 연초에 낮은 금액으로 시작하여 하반기로 갈수록 그 수입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19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9년 북한의 대중수입액은 2018년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이나 최근 5년치 추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그림 2]의 오른쪽은 2018년 북한의 월별 대중수출 변화를 최근 5년간 추세와 비교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대중 월별 수출도 연초에는 낮은 금액으로 시작하여 하반기로 갈수록 그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 대중 수출액은 월 2천만달러를 못 넘는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통계상으로만 보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엄격히 지켜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북한의 대중수입이 수출만큼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은 수출에 대한 제재가 수입에 대한 제재보다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품목에 있어서도 북한의 수출상품은 무연탄, 의류, 수산물 등 상위 몇 개 품목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수입의 경우는 그 품목과 양이 훨씬 더 다양하다. 아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2017년에 정제유(이전 공급량의 55%인 200만배럴까지 공급 가능), LNG, 콘텐사이트와 항공유 대북수출 전면 금지 등의 조치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북한의 대중수입액도 상당 부분 감소했다.

[그림 2] 2019년 북한의 대중 월별 수입(좌) 및 수출(우) 동향



주: 2019년 통계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통계임.  
 자료: 『해관통계』를 이용해 저자 작성.

## 2. 주요 품목별 대중무역 현황

### 가. 대북제재에 따른 주요 수출 품목의 변화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한 2017년 중반 이후 북한의 대중수출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그해에는 전년 대비 37.3% 감소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상위 6개 품목이 북한 대중수출의 약 85%를 차지했다. 그러나 제재가 완전하게 실행된 2018년 이후부터는 상위 6개 품목의 대중수출이 급격히 감소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줄었다. 이러한 변화는 유엔안보리가 2016년 3월 2일 UNSCR 2270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수출입 품목을 직접적으로 제재하면서 시작되었다.<sup>2)</sup>

2016년 UNSCR 2270에서도 북한으로부터의 무연탄 및 철광석 수입을 금지시켰으나 민생 목적의 수입은 허용함으로써 그 구분이 모호해져 제재의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러나 2016년 11월 30일 UNSCR 2321호에서는 유엔안보리가 민생 목적 등 유보사항을 삭제하고 북한의 무연탄 수출 상한 쿼터(4억달러 또는 750만톤 중 적은 쪽 적용)를 도입했고, 중국 상무부가 2017년 2월 17일 북한산 무연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고시문을 발표하면서 서서히 제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후 UNSCR 2371(2017년 8월 5일)에서는 북한산 무연탄,

2) 2016년 이전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 지도부의 사치품 수입에 대한 제재와 핵이나 WMD 관련 제재 성격이 강했다.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고, UNSCR 2375(2017년 9월 11일)에서는 북한산 직물과 의류 완제품 수입도 금지시켰다. UNSCR 2397(2017년 12월 22일)에서는 이례적으로 제재 품목에 대해 HS 코드까지 명시하면서 북한산 식품과 농산품(HS 07, 08, 12), 기계류(HS 84), 전자기기(HS 85), 토석류(HS 25), 목재(HS 44), 선박(HS 89)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킴으로써 제재효과가 더욱 더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sup>3)</sup>

다음 <표 1>에서는 앞서 언급한 북한의 수출품 비중 변화를 볼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엔안보리의 제재효과가 크게 미치지 못했던 2016년의 경우 북한의 수출 제재 19개 품목의 대중수출액이 24.1억달러에 달해 북한의 총 대중수출액의 97.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동 품목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인해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각각 95.5%, 47.5%, 31.5%로 감소하였다.

이하에서는 2016년 북한의 대중수출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무연탄, 의류, 철광석, 수산물의 대중수출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1) 무연탄

먼저 북한산 무연탄(HS 270111)은 UNSCR 2321호(2016. 11. 30)와 중국 상무부 고시 12호(2017. 2. 17)에 의해 2017년 3월부터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 품목이다. <표 1>에서와 같이 무연탄은 2016년에 11.8억달러가 중국으로 수출되었고 북한의 수출에서도 약 48%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품목이었다. 그러나 북한 무연탄의 대중수출은 2016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2017년에는 전년 대비 66% 감소한 4억달러를 수출했고, 그해 수출 비중도 24.3%로 감소했다. 이후 2018년과 2019년도의 북한의 무연탄 수출량은 제로(0)이다.

HS 코드 27(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에 해당하는 품목도 북한의 수출 제재 대상이기는 하나 무연탄(HS 2701)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무연탄을 제외한 HS 코드 27 제품군의 대중수출이 전체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특이한 사안은 HS 코드 2716에 해당하는 전기에너지가 2017년에 1,100만달러, 2018년에는 1,140만달러, 2019년도에는 1,066만달러가 중국으로 수출된 것이다.

3) 유엔안보리의 2016년 이후 대북제재에 대한 내용은 임소정(2018)을 참고하여 작성함.

〈표 1〉 북한의 수출 제재 품목의 대중수출 비교(HS 2, 4단위)

(단위: 천달러, %)

분류		2016		2017		2018		2019	
품목	HS 코드	수출액	총수출 대비 비중	수출액	총수출 대비 비중	수출액	총수출 대비 비중	수출액	총수출 대비 비중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03	190,157	7.7	163,000	9.9	0	0	0	0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07	6,318	0.3	12,975	0.8	4,754	2.4	0	0
식용 과일; 견과류, 껍질을 벗기는 열매나 멜론 등	08	51,008	2.1	79,053	4.8	4,314	2.2	0	0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품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	11,266	0.5	13,050	0.8	1,090	0.6	0	0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25	34,738	1.4	43,751	2.6	10,600	5.4	0	0
광·슬래그·회 (2601, 2607, 2603, 2614, 261590, 261610)	26	226,615	9.2	187,106	11.3	25,300	13.0	19,883	10.3
광물성연료·광물유(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단, 무연탄(270111) 제외	27	10,104	0.04	11,871	0.7	11,400 (HS 2716)	5.8	10,670	5.5
무연탄(270111)	2701	1,186,785	48.1	401,884	24.3	0	0	0	0
희토류(稀土類)금속·이트륨·스칸듐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유기 화합물	2846	2,634	0.1	9	0.001	0	0	0	0
목재와 그 제품, 목탄	44	19,200	0.8	13,924	0.8	2,406	1.2	0	0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편물·뜨개질편물 적용)	61	85,380	3.5	65,254	3.9	10	0.005	0	0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편물·뜨개질편물제외)	62	475,664	19.3	496,529	30.0	9.2	0.005	2	0.001
금	7108	0	0	0	0.0	0	0	0	0
철강	72	43,133	1.7	59,346	3.6	31,900	16.4	30,095	15.6
니켈과 그 제품	75	197	0.008	42	0.003	0	0	0	0
아연과 그 제품	79	39,521	1.6	0	0.0	0	0	0	0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4	451	0.02	572	0.04	29	0.02	1	0.001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85	22,687	0.9	30,592	1.8	984	0.5	18	0.009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	2,211	0.1	869	0.1	0	0	0	0
합계		2,408,069	97.4	1,579,827	95.5	92,796	47.6	60,669	31.5

자료: 「해관통계」를 이용해 저자 작성.

## 2) 의류

북한의 의류 품목(HS 61, 62)은 UNSCR 2375호(2017. 9. 11)와 중국 상무부 고시 52호(2017. 9. 23)에 의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 품목이다.<sup>4)</sup> 의류가 북한의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도 기준 22.8%로, 무연탄 다음으로 중요한 수출 품목이었다. 의류의 2016년도 대중수출액은 5.6억달러를 기록했고 2017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었으나 북한의 총 대중수출액이 감소하면서 의류가 전체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8년 이후에는 강력한 제재 효과로 HS 코드 61 품목군이 9,771달러, HS 코드 62 품목군이 9,201달러로 급감하였고, 2019년도에는 의류품의 대중수출이 거의 제로(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 3) 철광석

철(HS 코드 72), 광(鑛)·슬래그(slag)·회(灰)(HS 26)는 UNSCR 2371호(2017. 8. 5)와 중국 상무부 고시 40호(2017. 8. 14)에 의거해 2017년 9월부터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 품목이다. HS 코드 72의 경우 2016년 대중수출이 약 4,300만달러로 북한의 총 대중수출 비중에서 1.7%를 차지해 그 비중이 타 광물자원에 비해 높지 않았다. 2019년 동 품목의 대중수출은 3,000만달러로 다소 감소했으나, 북한의 총 대중수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로 동 품목이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6%로 증가했다.

HS 코드 26 품목군은 2016년에는 약 2.3억달러가 중국으로 수출되었고 전체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2% 정도였으나, 2019년 동 품목의 대중수출액은 1,988만달러로 급격히 하락했다. 동 품목의 총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앞서 설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3%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 4) 수산물

수산물(HS 03)은 UNSCR 2371호(2017. 8. 5)와 중국 상무부 고시 40호(2017. 8. 14)에 의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2016년에는 북한산 수산물이 중국으로 약 1.9억달러 수출되었고 북한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7% 정도였다. 동 품목은

4)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서 HS 코드 61과 62의 하부 단위의 일부는 제재 품목이 아님.

제재의 영향으로 2017년 9월 이후 현재까지 북중 통계에 제로(0)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상으로만 볼 때 북한의 대중 수출물 수출은 완전히 봉쇄된 것으로 보인다.

## 5) 기타 제재 품목들

앞서 언급한 4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15개의 제재 품목 역시 그 수출량이 크게 감소했고, 이들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감소했다. 15개의 품목 각각이 전체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서 언급한 품목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는 않으나, 이들 품목들 역시 제재 효과로 인해 2019년의 대중수출액은 2016년 대비 급격히 감소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품목 대부분이 중국으로의 수출이 막혀있는 상태이다.

## 6) 대북제재로 인한 대중수출 품목의 변화

〈표 2〉는 2016년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과 그 이후 북한의 10대 대중수출 품목 군을 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서 2016년 상위 10개 품목이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9%이며, 그중에서 상위 5개 품목이 88%를 차지한다. 상위 5개의 품목은 앞서 언급한 무연탄(HS 27), 의류(HS 61, 63), 철광석(HS 26), 수산물(HS 3) 등이다. 반면, 2019년도 북한의 대중수출품 상위 10개 품목 중 2016년도 상위 10개 품목과 중복되는 것은 HS 코드 27 이하에 해당하는 제철물(HS 2710 무연탄은 제외), HS 코드 26에 해당하는 광(鑛)·슬래그(slag)·회(灰), 그리고 HS 코드 72에 해당하는 철강 등 세 품목이다. 그러나 이들 품목의 대중수출액은 철강을 제외하고는 거의 90% 또는 그 이상 감소하여 수출액에 있어서도 2016년과는 절대적으로 큰 차이가 난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이었던 무연탄, 의류, 수산물은 수출량이 전무한 상태로 2019년도 북한의 상위 10개 대중수출 품목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2019년도 북한의 대중수출은 제재의 영향으로 2016년 대비 92.7% 감소하였다. 북한 당국은 대북제재를 피해 시계와 그 부분품(HS 91), 조제 깃털과 솜털(HS 67), 광학기기와 사진용 기기(HS 90) 등을 주력상품으로 수출하고 있고, 여전히 제재 품목 군에 있는 철강(HS 72), 광(鑛)·슬래그(slag)·회(灰)(HS 26) 등이 소량으로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상 언급한 5개 품목이 북한의 전체 수출의 71.3%를 차지한다. 참고로 상위 10개 품목이 북한의 총 대중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1%(1.76억달러)이다.

<표 2> 품목별 대중수출 품목의 변화(HS 2단위)

(단위: 천달러, %)

	분류					
	품목	HS	2016년	품목	HS	2019년
1	광물성 연료·광물유(礦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27	1,200,000 (48.5)	시계와 그 부분품	91	42,443 (22.0)
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62	476,000 (19.3)	조제 깃털·솜털과 그제품	67	30,318 (15.7)
3	광(鑛)·슬래그(slag)·회(灰)	26	227,000 (9.2)	철강	72	30,095 (15.6)
4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3	190,000 (7.7)	광(鑛)·슬래그(slag)·회(灰)	26	19,883 (10.3)
5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61	85,400 (3.5)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 기기, 측정기기와 그 부속품	90	14,888 (7.7)
6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8	51,000 (2.1)	광물성 연료·광물유(礦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27	10,670 (5.5)
7	철강	72	43,100 (1.7)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	8,867 (4.6)
8	아연과 그 제품	79	39,500 (1.6)		98	6,979 (3.4)
9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25	34,800 (1.4)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64	6,630 (2.5)
10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85	22,700 (0.9)	유리와 유리제품	70	4,893 (91.1)
합계			2,369,500 (95.9)	합계		175,666 (91.1)

주: 괄호 안의 수치는 북한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나. 대북제재에 따른 주요 수입 품목의 변화

### 1) 대북제재 품목의 대중수입 변화<sup>5)</sup>

이하에서는 북한의 대중수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3>은 2017년 9월 11일 UNSCR 2397호에 의해서 북한으로의 수출이 제한된 21개 품목(HS 코드 2단위 기준)이다. 이들 제재 품목 중에서 3개가 자본재(HS 84, 85, 86), 13개가 중간재(HS 25, 26, 27, 68 72, 73, 74, 75, 78, 79, 80, 81, 87), 5개가 소비재(HS 76, 82, 83, 88, 89)에 해당한다.<sup>6)</sup>

5) 유엔안보리는 2006년 이후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사치품 수입 동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동 사안과 관련 관심이 있을 경우 Jeong, Hyung-gon, "United Nations Sanctions on North Korea's Luxury Goods Imports: Impact and Implications," *Asian Economic Policy Review* 14, 2019, pp.214-233 참조.  
6) HS 코드를 BEC 코드로 전환하여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로 분류함.

〈표 3〉 수입 제재 품목의 대중수입 비교(HS 2 단위)

(단위: 천달러, %)

	분류		2016		2017		2018		2019(11월까지)	
	품목	HS 코드	수입액	총 수입액 비중	수입액	총 수입액 비중	수입액	총 수입액 비중	수입액	총 수입액 비중
1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25	16,800	0.6	4,785	0.1	8,283	0.4	10,224	5.3
2	광(鑛)·슬래그(slag)·회(灰)	26	227	0.0	33	0.0	215	0.01	440	0.2
3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青)물질, 광물성 왁스	27	138,000	4.9	69,300	2.1	23,800	1.1	26,574	13.8
4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	5,955	0.2	5,508	0.2	6,712	0.3	8,882	4.6
5	철강	72	96,300	3.4	85,000	2.6	290	0.01	77	0.04
6	철강의 제품	73	55,800	2.0	60,700	1.8	695	0.03	185	0.1
7	구리와 그 제품	74	2,599	0.1	1,780	0.1	24	0.001	27	0.01
8	니켈과 그 제품	75	13	0.0	6	0.0	0	0.0	0	0.0
9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	21,600	0.8	26,600	0.8	472	0.02	3	0.002
10	납과 그 제품	78	28	0.0	328	0.0	0	0.0	0	0.0
11	아연과 그 제품	79	10	0.0	38	0.0	0	0.0	0	0.0
12	주석과 그 제품	80	1,642	0.1	6,158	0.2	31	0.001	0	0.0
13	그 밖의 비금속(非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81	9	0.0	265	0.0	0	0.0	0	0.0
14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82	6,441	0.2	9,073	0.3	48	0.002	18	0.009
15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83	12,300	0.4	25,300	0.8	358	0.016	93	0.048
16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4	238,000	8.4	270,000	8.1	6,846	0.309	619	0.321
17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85	282,000	10.0	342,000	10.3	7,716	0.348	2,745	1.423
18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여러 가지 교통신호용 기기	86	3,069	0.1	2,255	0.1	0	0.0	0	0.0
19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87	250,000	8.8	202,000	6.1	1,834	0.08	421	0.218
20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88	109	0.0	1,563	0.0	0	0.0	0	0.0
21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	2,672	0.1	2	0.0	0	0.0	0	0.0
합계			1,133,574	40.1	1,112,694	33.4	57,324	2.6	50,308	26.1

주: HS 84, 85, 86 = 자본재 / HS 25, 26, 27, 68, 72, 73, 74, 75, 78, 79, 80, 81, 87 = 중간재 / HS 76, 82, 83, 88, 89 = 소비재  
자료: 「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1개의 제재 품목이 2016년 북한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금액은 11억 3,400만달러로 그 비중은 약 40%이다. 이 중에서 제재에 해당하는 자본재의 수입액은 5.23억달러였으며, 중간재는 5.67억달러, 소비재는 4,300만달러였다. 상기 언급한 21개의 수입 제재 품목은 2019년도(11월까지의 통계)에는 약 5,000만달러로 급감했다. 2016년 대비 95.6%가 감소한 수치이다.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6년의 경우 아래 제재 품목 중에서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HS 85)으로 약 2.82억달러가 수입되었다. 그 다음을 차지한 품목은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HS 87)이며 수입금액은 약 2.5억달러이다.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 부분품(HS 84), 광물성 연료(HS 27), 철강(HS 72) 등이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제재로 인해 2019년의 상기 21개 제품의 수입은 매우 미미한 정도이고 2016년 대비 95.6%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이들 제재 품목이 북한의 총 대중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이르고 있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000만달러의 제재 품목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원유 연간 400만배럴 이하 등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품목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2) BEC 상품분류에 따른 북한의 대중수입 동향

앞서 북중교역을 HS 코드 분류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하에서는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상품 분류에 따른 북한의 대중수입 품목을 사용목적별로 분류해서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BEC 분류는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로 분류되어 있고 이를 통해 수입 품목별 활용 용도를 유추할 수 있다.

다음 <표 4>는 BEC 상품분류에 따른 북한의 수입 동향이다. <부표 1>에는 BEC 상품분류에 따라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로 분류한 것을 HS 2단위를 기준으로 정리해서 북한의 상위 수입 품목을 표시했다. 먼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에는 5.4억달러의 자본재 수입이 이루어졌다. 이후 2017년에는 그 액수가 5억달러로 감소했고 2018년에는 2,732만달러로 대폭 감소했으며, 2019년 11월까지 2,183만달러가 수입되었다. 이렇게 급격하게 자본재 수입이 감소하게 된 것은 대북제재 때문인데, 2016년의 경우 자본재 제재 품목 수입액은 5.23억달러로 총 자본재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2019년에는 제재 대상의 자본재 수입이 336만달러로 2016년 대비 99.4%나 급감했다. 향후 2019년 전체의 북중무역 통계가 발표되면 자본재의 수입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강력한 제재의

〈표 4〉 BEC 상품분류에 따른 북한의 수입동향

(단위: 천달러)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11월
자본재	544,073	502,382	27,322	21,832
중간재	1,481,530	1,783,056	1,320,691	1,417,262
소비재	805,381	1,046,207	869,610	892,920
합계	2,830,984	3,331,644	2,217,623	2,332,014

자료: 「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영향으로 자본재의 수입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부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재 수입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자본재 수입의 약 98%를 차지한다. 자본재 수입 품목에 있어서도 매년 금액 차이로 인한 순위 변동은 있으나 5개 품목이 거의 일정하게 상위 5개 품목을 차지한다. 주요 자본재 수입 품목은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HS 84)과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HS 85), 그리고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HS 94) 품목군에 속한 것들이다. 수입에 있어서 제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는 자본재로, 이들 수입의 급격한 감소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북한산업 전반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간재의 경우 2016년에 14.82억달러가 수입되었으나 2017년 17.83억달러로 증가했다. 2018년에는 13.2억달러, 2019년도에는 14.17억달러가 수입되어 금액으로만 본다면 대체로 제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간재에 대한 제재 품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에 중간재 제재 품목 수입이 5.67억달러였으나 2019년에는 4,683만달러로 약 92%나 감소했다. 중간재 역시 상위 10개 품목이 중간재 전체 수입의 약 62%를 차지한다. 구체적인 수입 품목은 〈부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소비재의 경우 2016년에는 8.1억달러 수입되었으나 2017년 10.46억달러로 증가했고, 2018년에는 8.7억달러, 2019년에는 8.93억달러로 증가했다. 소비재 역시 금액상으로 보면 제재 기간에도 큰 변동은 없으나 실제 제재 품목의 수입액은 2016년 4,300만달러에서 2019년 11만달러로 거의 100% 감소했다. 소비재 역시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의 약 66%를 차지한다.

### 3) 대북제재로 인한 대중수입 품목의 변화

이하에서는 2016년과 2019년 북한의 대중수입 상위 10개 품목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도 북한의 최대 수입 품목은

전기기와 그 부품군(HS 85)으로 총 2.82억 달러가 수입되었고 총 대중수입에서 10%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부품군(HS 87)과 원자로·보일러 기계류(HS 84) 품목군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상위 3개 수입 품목들은 광물성 연료와 광물유(HS 27) 품목군과 함께 2017년 이후 북한으로의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로 2019년에는 상위 10개 수입 리스트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2019년 북한의 상위 10개 수입 품목에서 1위는 2016년에 4위를 차지했던 플라스틱과 그 제품(HS 39)군이다. 이 품목의 2016년 수입액은 1.77억달러였으나 2019년도에는 2.51억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2016년도 1위부터 3위까지의 품목군을 제외한 그 이하의 10대 품목군들이 2019년도에는 상위 수입 품목군으로 올라섰다. 2위 품목인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

<표 5> 품목별 대중수입 품목의 변화(HS 2단위)

(단위: 천달러, %)

	분류					
	품목	HS	2016년	품목	HS	2019년
1	전기기와 그 부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품·부속품	85	282,000 (10.0)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	251,080 (10.8)
2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품·부속품	87	250,000 (8.8)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54	172,157 (7.4)
3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품	84	238,000 (8.4)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15	125,300 (5.4)
4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	177,000 (6.3)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60	82,080 (3.5)
5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54	175,000 (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61	80,336 (3.4)
6	광물성 연료·광물유(礦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27	138,000 (4.9)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24	78,904 (3.38)
7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61	118,000 (4.2)	곡물	10	77,858 (3.3)
8	철강	72	96,300 (3.4)	시계와 그 부품	91	75,684 (3.2)
9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60	76,700 (2.7)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11	65,566 (2.8)
10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15	75,800 (2.7)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	94	65,086 (2.8)
합계			1,626,800 (57.5)	합계		1,074,051 (46.1)

주: ( )인의 수치는 북한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료의 스트립 등(HS 54)은 2016년도와 2019년도 수입액이 거의 비슷하고, 동식물성 지방과 기름 품목(HS 15)은 2019년도 들어 크게 증가했다. 2019년도 수입 품목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곡물(HS 10)과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문 등 품목(HS 11) 수입이 상위 10위 수입 품목에 들어온 것이다.<sup>7)</sup> 각각의 수입액은 곡물이 7,786만달러, 제분공업 생산품이 6,557만달러를 차지한다. 아마도 북한 당국이 식량가격 안정을 위해서 수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섬유류의 경우 HS 코드 61에 해당하는 의류와 그 부속품의 경우 2016년에는 1.18억달러를 수입했으나 2019년의 경우 8,034만달러로 32% 감소했고,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HS 60)은 7,670만달러에서 8,208만달러로 조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메리야스 뜨개질 편물의 경우는 2019년의 경우 의류(HS 60, 61)의 대중수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 제품군들은 국내 수요를 위해서 수입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3. 대북제재에 따른 북중무역 유형 변화

#### 1) 무역 유형 분석

아래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무역 유형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의 「해관통계」는 교역 유형을 총 18개로 분류하여 무역상대국과의 통계를 밝히고 있다. 아래 표는 2019년도 북한의 대중수입 유형을 나타낸다. 북한의 대중수입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역 형태는 일반무역으로, 15.13억달러(전체의 64.9%)를 차지한다. 여기에 변경무역인 2.66억달러(11.4%)를 포함하면 두 유형의 교역이 북한의 대중수입의 76.3%를 차지한다.

반면, 북한의 대중수출(2019년 1~11월)에 있어서 일반무역(ordinary trade)의 규모는 1,114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5.8%를 차지한다. 북한의 대중수출 교역 형태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수출산업이 취약해 일반무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5%대에 머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변경무역 제도를 이용할 경우 중국 당국에 내야할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수입관세의 50%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무역보다는 변경무역을 더 활용하고자 한다. 변경무역권을 가진 중국 업체는 북중간 수출입 업무를 대행하면서 중개자 역할을 한다. 2019년 북한의 대중수출액 중에서 변경무역(border trade)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로, 금액으로는 약 3,887만달러이다. 일반교역과 변경무역을 합치면 26% 정도로 이들 대부분이 채소나 과일

<sup>7)</sup> 북한의 곡류수입 관련 내용은 중국의 대북지원 파트에서 자세히 서술함.

<표 6> 북한의 대중수출입 유형별 분류(2019년 1~11월)

(단위: 천달러, %)

유형	수입액	수출액
Ordinary trade	1,512,758 (64.9)	11,144 (5.8)
International aid	35,137 (1.5)	0 (0.0)
Process & assembling	12,987 (0.6)	213 (0.1)
Process with imported materials	5,321 (0.2)	2,267 (1.2)
Border trade	265,819 (11.4)	38,874 (20.2)
Outward processing	96,264 (4.1)	72,720 (37.8)
Barter trade	34 (0.001)	0 (0.0)
Warehousing trade	73,651 (3.2)	29,206 (15.2)
Entrepot trade by bonded area	329,722 (14.1)	31,209 (16.2)
Other	20 (0.001)	6,978 (3.6)
sum	2,331,712 (100.0)	192,610 (100.0)

주: ( )안의 수치는 북한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등과 같은 품목으로 수출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북한의 대중수출에 있어서 가공무역에 해당하는 Processing and Assembling과 Processing with Imported Materials의 총액은 248만달러로 총 수출액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까지는 가공무역은 일반무역 액의 두 배 이상을 차지했으나 의류 등 섬유류 수출에 대한 제재로 2019년에는 그 규모가 상당히 감소했다.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은 7,272만달러로 37.8%를 기록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역외가공 비중이 2019년에 급격히 증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해관통계에서 어떤 품목들이 역외가공으로 교역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아마도 제재 이외의 품목일 가능성이 높다. 보세창고무역(customs warehousing trade) 역시 2,921만달러를 기록하여 15.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중계무역(Entrepot Trade by Bonded Area) 역시 총 3,121만달러로 전체의 16.2%를 차지하고 있다. 보세창고 무역이나 중계무역은 외형적으로는 북중 무역으로 보이나 유럽이나 제3국과의 교역을 위해 중국내 법인이 수출입 중계역할을 하는 형태이다. 기타 유형은 698만달러를 기록, 총 수출의 3.6%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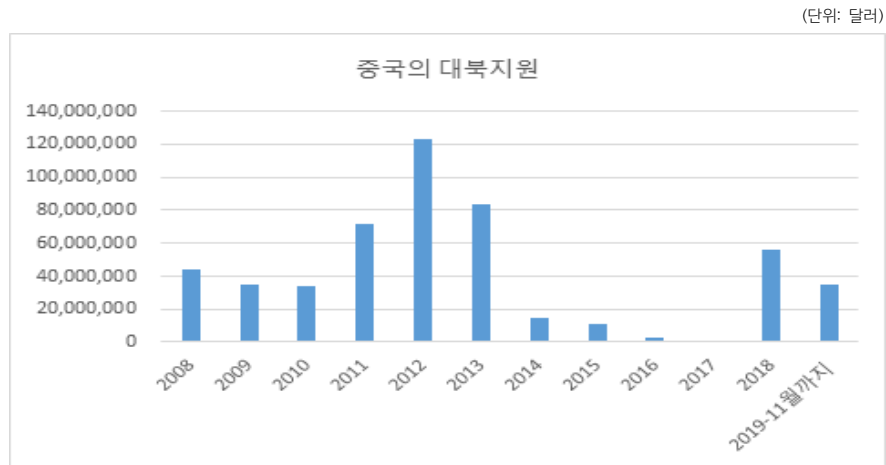
## 2) 중국의 대북 지원 분석

중국의 「해관통계」는 중국 당국이 북한에 제공한 원조 금액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에서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조가 2010년에 급격히 증가하여 김정은 위원장 집권 첫 해라 할 수 있는 2012년에 1억 2,000만달러가 지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정점으로 이후에는 그 액수가 급격히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중국의 대북원조는 그해 중국의 대북수출액의 3.7%를 차지하였으나, 2016년의 경우는 0.1%에도 못 미쳐 악화된 북중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본격적으로 대북제재를 시작한 2017년에는 북한에 대한 원조를 완전히 중단했다. 그러나 2018년도 북중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중국의 대북 원조 또한 증가하여 중국은 북한에 국제원조로 5,605만달러를 지원하였다.

[그림 3]은 2008년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중국의 대북지원 통계이다. 중국은 2019년 한 해 동안 3,514만달러를 지원했다. 「해관통계」에 따른 월별 지원 추세를 보면 4월부터 8월까지만 집중되어 있고 이전과 이후 11월까지의 대북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4월: 3,399,616달러, 5월: 24,000,952달러, 6월: 7,445,536달러, 7월: 88,156달러, 8월: 202,469달러).

대북제재의 효과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지표는 북한 내 쌀가격이다. 또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2019년도에 북한의 식량난 관련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실상을 유추하기

[그림 3] 중국의 대북지원(2008~19년 11월까지)



자료: 「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7〉 중국의 식량 관련 대북지원

년도	품목	물량(톤)	금액(달러)
2012년	옥수수(10059000)	220,000,000	87,300,000
	질소비료(31022100)	64,500,000	14,281,033
2013년	대두(12019010)	10,700,000	9,611,718
2018년	쌀, 정미(10063080)		1,020,512
	질소비료(10063080)		55,027,842

주: 2019년의 대북식량 지원은 중국해관 통계에서 지원 유형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언급하지 못함.  
자료: 「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위해서 이하에서는 중국의 식량 관련 대북지원을 살펴보았다. 유감스럽게도 2019년 하반기 이후 중국의 대북지원 품목에 대한 세부 통계를 확보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19년도의 경우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 총액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식량 관련 세부 지원은 2018년도까지의 자료만을 근거로 분석한다.

〈표 7〉의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의 중국의 식량 관련 대북지원 내용이다. 먼저 2012년에 옥수수 2.2억톤이 두 번에 걸쳐 지원되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8,730만달러어치다. 질소 비료 역시 6,450만톤이 지원되었고, 이 역시 금액으로 환산하면 1,428만달러어치이다. 2013년에는 대두가 1,070만톤 지원되었고, 이후 중국의 대북지원은 통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2018년 들어 대북제재 강화로 인해 북한 내 식량가격의 변동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제재의 강도에 비해 북한의 식량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이는 아마도 생산독려를 통한 증산,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지원과 수입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2018년도의 경우 쌀(정미)이 약 100만달러어치 지원되었고 질소비료는(HS 31021000) 5,500만달러어치 지원되었다.

〈표 8〉은 2017년 이후 북한 당국의 대중 곡물 수입 현황이다. 먼저 옥수수는 2017년 1,124만달러가 수입되었으나 2019년(11월까지 기준)에는 그 양이 423만달러로 감소했다. 반면, 쌀은 2017년 2,134만달러를 수입한 것에 그쳤으나 2019년(11월까지 기준)에는 7,347만달러를 수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8〉 북한의 대중 식량 수입 동향

(단위: 달러, %)

	2017년	2018년	2019년
옥수수 종자용(100510)	0	9,500	19,000
옥수수 기타(100590)	11,236,171	1,127,660	4,227,000
쌀 (경미)(100630)	21,339,323	24,633,774	73,468,000
메밀(100810)	0	0	144,000
합계	32,575,494	25,771,003	77,858,000

주: 중국해관 통계에서 2019년에는 수량을 확인할 수 없어 달러로만 표기함.  
 자료: 「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III. 나가는 말

이 글은 중국의 「해관통계」를 기초로 2019년 북중교역의 여러 측면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북한의 주력 수출품이었던 무연탄, 의류, 철광석, 수산물을 포함한 19개 수출 금지 품목은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도 수출이 거의 완벽하게 봉쇄된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제재의 영향으로 2017년도부터 북한의 대중수출 품목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2019년의 경우 시계부품, 조화(造花)나 가발, 완구와 신발류 제품들이 상위 수출 품목으로 부상했다.

2019년 북한의 대중수입에 있어서도 유엔안보리의 제재로 21개(HS 2단위 기준)품목이 2016년 대비 95.6%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수입 품목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2019년의 경우 플라스틱제품(HS 39), 인조방직용 섬유재료(HS 54), 동식물성 지방과 기름(HS 15), 메리야스 편물과 의류(HS 60, 61) 등이 최상위 수입 품목군으로 부상했다. 2019년 수입 품목 중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곡물수입이 상위 수입 품목으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BEC에 따른 분류를 통해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의 수입동향을 분석해보면, 자본재의 수입이 2016년 이후 급감했는데 이는 자본재에 대한 수입 제재 품목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9년 제재 대상인 자본재의 수입은 2016년 대비 99.4%나 감소했다. 중간재와 소비재의 경우 2016년 대비 금액상으로는 2019년까지 큰 변화는 없으나 이 두 품목군 역시 제재 대상은 거의 100% 가깝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중무역 유형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 북한의 수출 산업구조의

취약성으로 일반무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5% 전후이며 변경무역이 약 20%를 차지한다. 일반무역과 변경무역에서 주로 거래되는 상품은 채소나 과일류이다. 2019년 들어 역외가공이 전체 수출에서 37.8%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중계무역이나 위탁가공무역 등이 차지한다. 일반무역과 중계무역을 합친 25%를 제외한 나머지가 위탁가공무역이나 역외가공 등의 형태로 수출되고 있어 북한의 수출산업 구조가 매우 취약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북한의 대중수입은 일반무역이 약 65%를 차지하고 중계무역이 약 11%를 차지한다. 나머지 24% 정도가 역외가공 등 위탁가공이 차지한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식량가격과 수급 동향을 유추하기 위해 중국의 대북지원과 곡물 수입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았다.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첫 해인 2012년에 1억 2천만달러를 국제원조로 지원하였다가 이후 북중관계가 악화되면서 원조가 급격히 감소하여 2017년에는 원조가 완전히 중단되었다. 이후 2018년 세 차례의 북중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약 5,600만달러가 지원되었고, 2019년에는 11월까지 통계를 기준으로 약 3,500만달러가 지원되었다. 식량 수입에 있어서는 약 7,790만달러를 기록하여 2016년 제재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 수입되었다.

이 글은 중국의 「해관통계」를 기초로 2019년 북중교역의 여러 측면들을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2017년 중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2019년도에도 통계상으로 제재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7년 이후 대중무역량도 절대적으로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수출 감소분이 수입 감소분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이에 따른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 역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17년 이후 3년간의 무역적자만 하더라도 약 58억달러에 이른다. 현재와 같은 대북제재가 지속된다면 북한 당국의 외환보유액은 곧 바닥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이런 제재 상황에서도 북한 내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대규모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의 환율은 안정적이라는 점이다. 제재 대상 품목의 수출입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 해당 품목의 교역량이 대폭 감소하긴 했으나, 중간재와 소비재의 수입 규모(금액 기준)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간재의 수입량으로 볼 때 적어도 북한 내 공장 가동률이 중간재의 부족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김정은 시대 들어 국산화 정책으로 국내에서도 생산재의 조달이 일부라도 가능하다면 그럭저럭 제재하에서도 궁핍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유지해 나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9년 11월까지의 북중무역규모가 25.2억달러로 약 10년

전인 2000년대 후반의 무역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2016년 58억달러의 약 44% 수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재의 영향으로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글은 중국의 「해관통계」를 근거로 북중무역을 분석했고 그에 근거해서 제재 효과를 평가했다. 중국 통계만을 근거로 분석했기 때문에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여전히 북중간 국경에서의 밀무역이 성행하고, 공해상에서의 불법 교역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미국 정부 역시 북중간 밀무역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 역시 공식적인 무역에서는 제재 품목에 대해서 엄격히 UN안보리의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북중간 밀무역에는 눈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밀무역으로 벌어들이는 외화, 국경을 오가는 보따리상, 해외로 부터의 송금,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 등으로 눈덩어리처럼 불어만 가고 있는 무역적자를 메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북한이 겪고 있는 제재의 고통은 이러한 현실 등을 감안해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북중 교역액은 중국의 해관통계액 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효과는 매우 크다. 북한이 제재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제재의 목표인 북한 당국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적어도 2019년까지는 경제적으로 보다 더 나은 북한을 만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 임했을 것이다.<sup>8)</sup> 그러나 이제 북한이 문을 닫고 있다. 김위원장은 경제적으로 더 나은 북한을 만들 수는 없으나 궁핍한 현 상황을 어렵게 유지하면서 그럭저럭 현 체제는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제재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김위원장이 핵협상이나 핵개발 전략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미국은 강력한 대북제재만을 활용해서 북한과의 핵협상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제재와 함께 당근이 같이 제공되고 이를 통해 협상이 가능해질 때 제재 본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북한 역시 지난해 말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자립경제’의 실현은 절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제재상황과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그 아무리 개혁과 혁신을 한다 해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북미 상호간 양보를 통한 협상만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다.

8) 북한의 새로운 경제정책과 변화, 제재 하에서의 북한경제 현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Lee, Jong-seok and Choi Eun-ju(2019) Demystifying The North Korean Economy, The Sejong Institute 참조.

## 참고문헌

Lee, Jong-seok and Choi Eun-ju, *Demystifying The North Korean Economy*, The Sejong Institute, 2019

Jeong, Hyung-gon, “United Nations Sanctions on North Korea’s Luxury Goods Imports: Impact and Implications,” *Asian Economic Policy Review*, 14, 2019, pp.214~233.

임소정,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전망,” KIEP 기초자료 18-01, 2018.  
「해관통계」, 2008~19년.

〈부표 1〉 BEC 상품분류에 따른 상위 수입 품목

(단위: 천달러)

	HS 2단위	2016년 수입	HS 2단위	2017년 수입	HS 2단위	2018년 수입	HS 2단위	2019년 수입
자본재	84	189,000	84	197,000	94	13,500	94	10,845
	87	178,000	85	164,000	84	5,328	90	7,467
	85	140,000	87	104,000	90	5,053	85	2,512
	94	13,900	94	18,700	85	2,390	84	440
	73	7,410	90	6,615	87	576	87	230
	합계	528,310 (97.0)	합계	490,315 (97.7)	합계	26,848 (98.3)	합계	21,494 (98.5)
중간재	54	175,000	39	183,000	39	183,000	39	203,208
	39	150,000	54	138,000	54	138,000	54	172,157
	27	138,000	31	84,800	31	84,800	60	82,080
	72	96,300	60	80,500	60	80,500	91	67,869
	60	76,700	11	65,800	11	65,800	11	65,546
	40	72,100	48	63,100	48	63,100	56	59,172
	55	68,800	55	53,300	55	53,300	48	58,910
	85	65,400	40	52,700	40	52,700	69	57,158
	48	52,800	69	51,700	69	51,700	40	54,452
	56	44,000	56	47,800	56	47,800	55	51,633
합계	939,100 (63.4%)	합계	820,700 (61.5)	합계	820,700 (62.2)	합계	872,185 (61.5)	
소비재	61	118,000	15	129,000	15	129,000	15	103,479
	85	76,800	8	82,500	8	82,500	61	80,336
	3	73,700	61	74,400	61	74,400	10	73,468
	15	71,700	24	63,800	24	63,800	24	64,754
	8	67,800	3	44,300	3	44,300	8	48,358
	87	56,900	64	40,500	64	40,500	64	48,271
	62	45,100	17	38,000	17	38,000	39	47,872
	39	27,900	39	37,900	39	37,900	30	40,795
	64	27,500	94	32,400	94	32,400	3	38,632
	10	24,800	21	32,200	21	32,200	17	36,940
합계	590,200 (73.3)		575,000 (66.3)	합계	575,000 (66.3)	합계	582,905 (65.3)	

자료: 「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